

광주 ‘AI’·전남 ‘에너지산업’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30년 후에 광주전남은 어떤 모습일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뀔 2055년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소멸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인구 감소로 인해 생활권역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물론, 기존 산업이 쇠락하고 신 산업이 발전하며, 기후 변화의 여파로 삶의 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특히 2055년 지역민들은 기존에 자족 여건을 갖춘 도시를 중심으로 군락을 이뤄 생존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족 여건이 부족하고 인구감소가 급격한 농촌에서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도시인 광주를 중심으로 한 권역과, 순천·여수·광양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목포와 남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의 세 권역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권역은 모두 사람이 살지 않거나 인적이 드물어 불가피하게 행정구역 통폐합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광주·전남은 3개 권역만이 정주 기반을 갖춘 도시로 남게 된다는 예기다.

그렇다고 살아남는 3개 권역 모두가 변성한다는 예기는 아니다. 이들 권역도 지금부터 어떤 투자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부침을 겪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국토 서남권 중핵도시인 광주 권역은 인근 빛가람혁신도시와 화순·담양·장성군 등의 베드타운이 결합한 대도시권역이다. 자동차와 광산업, 전자제품 생산 시설이 있지만 산업기반은 뿌리가 깊지 못해 결국 현재 육성 중인 AI(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전망이다.

순천·여수·광양의 동남권은 국내 최대규모의 석

유화산업과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어 도시의 성장과 쇠락

이 이와 맞물릴 개연성이 커 보인다.

목포와 남해안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기존

의 조선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신성장동력인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도시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들 3개 권역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들 3개 권역을 제외한 전남의 농촌은 30년 후엔 인구 감소로 생활기반과 자족적 기능을 잃게 돼 기능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농수축산물 생산기반과 함께 도시민의 여가와 휴양, 체험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촌과 농업기반 붕괴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대 정부는 농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보다는 농업의 현상유지나 축소에 눈감아왔다. 자동차 반도체 중공업 등 2·3차 산업을 키우면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이로 인해 식량자급률이 지난 2022년 기준 40.5%에 그쳐 OECD 최하위권이다.

한국농촌연구원은 농촌인구가 2020년 976만 명에서 2050년 845만 명으로 131만여 명이 줄어든다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귀농·귀촌의 영향으로 방동했던 농촌 인구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촌공동체 붕괴, 공공서비스 축소 등 악순환을 불러와 농촌 소멸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남의 고령자는 24.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오는 2030년이면 32.9%에 달할 전망이다.

6월 3일 새로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농업과 농촌을 위한 획기적인 구조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현재의 추세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다.

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4차산업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지역민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초고령화 시대, 소멸위기에 놓인 광주와 전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 광주와 전남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권하는 지역 공약을 들여다보면 광주는 인공지능, 전남은 신재생에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미래전략산업이 앞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 사진은 광주 충장로에 모여있는 청년들의 모습들. 광남일보DB

린·미래차국가산단~광주 송정~광주연구개발특구)과 메가시티 고속도로(광주~고흥~전주~세종) 건설이 필요하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전남도는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영암~광주 △고흥~광주 △여수~순천 고속도로 등을, 철도망 구축으로는 △화남고속·경전선 연결선 △서해안 철도(군산~목포) △별교~고흥 연결철도 △나주 연결선 등을 요구했다. 전라선 고속화, 경전선과 남해선 고속전철 조기 개통은 물론 달빛고속철도 건설과 흑산공항 조성도 앞당겨야 한다.

모든 분야를 적절히 투자해 살찌운다면 좋겠지만 앞으로의 30년은 과거의 개발과는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 들고 있는데 농촌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생활기반 강화 투자를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며 “전남은 산업지대와 도시, 농어촌 각 공간별로 기능을 재배분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투자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한다.

산업화에 뒤처지면서 수십 년 소외와 차별의 길을 걸은 광주전남이 미래에도 뒤처져서는 안될 일이다. 미래에 대해 현명한 투자가 요구된다. 지금 우리의 투자가 30년 후 광주전남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웰에이징 선도대학! 조선대학교

초고령화 대한민국, **아시아 최대 웰에이징 빅데이터**를 보유한 조선대가 책임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펠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

빅데이터 활용 노인성 뇌질환 시닥터 개발 목표

교육부 G-LAMP 사업

뇌·신경 과학·기초의학분야 연구거점 도약

국내 최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지역거점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해양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선도

‘해양헬스케어 유효성실증센터’ 구축